DBpia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4, 395 - 413

다차원적 죽음불안의 타당화 및 비교문화적 검증

이홍표† 이홍석 고효진 김교헌
한국마사회 상담센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죽음불안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다차원적 죽음불안척도를 한국사회에 타당화한 후 비교문화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대 성인 312명, 40대 이상 181명이었다. 다차원적 죽음불안 척도는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적 분석 결과 42문항이 29문항으로 축약되었으나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시체에 대한 두려움,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 일찍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Temper 죽음불안 및 죽음 우울 척도와의 상관은 양호하였다.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신체 기증에 대한 태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6요인은 한국 문화에도 비교적 적합하였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시체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의 두려움이 한 가지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시사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주요어: 다차원적, 죽음불안, 비교문화

유사 이래 죽음은 인간의 근원적 공포로 존재해 왔다((Kübler-Ross, 1969).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존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직접적, 간접적 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죽음이 예견되면서 죽음이 의식화되는 순간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죽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홍표, (463-7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9-1 한국마사회 상담센터, FAX : 031-622-5913, E-mail : youbefree@naver.com

www.dbpia.co.kr

음 불안은 "죽은 상태를 예견함에 따라 야기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Tomer, 1994) 혹은 "죽음과 관계된 여러 가지 측면을 예견하거나 심사숙고하는데 기반을 둔, 불쾌함과 근심걱정의 주관적 느낌을 포함하는 정서적 반응"(Hoelter, 1979)으로 정의된다.

죽음 불안은 초기에는 단일한 일차원적 개념으로 여겨졌다(Cicirelli, 1999). 그러나 죽음 불안을 여러 가지 측면의 불안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면서 단일 개념으로써의 죽음 불안에 의문이 제기되었다(Durlak, 1982; Feifel, 1990; Hoelter, 1979; Neimeyer & Moore, 1994; Tokunaga, 1986). Choron(1974)은 이론적으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세 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구분하였고 Beg와 Zill(1982)은 죽음 불안이 "죽어 가는 과정",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 "죽음의 결과" 등과 관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aphael(1984)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소멸", "죽어 가는 과정", "타인에 대한 의존", "고통을 인내할 수 없는 무능력", "혼자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죽음 불안의 다양한 측면을 지적하였다. Karasu(1985) 역시 죽음이 사람에 따라 다른 복합적인 상징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죽음이라는 사실은 하나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고 하였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결과가 상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죽음 불안을 단일 개념으로 보고 죽음 불안의 여러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죽음 불안의 심리측정적 강건성(soundness)은 연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Depaola, Griffin, Young, & Neimeyer, 2003;Fortner & Neimeyer, 1999). 단일 개념의 죽음 불안은 인간이 죽음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는 반면 다차원적 개념은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의 질적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 불안은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가장 잘 개념화할 수 있다(Neimeyer, 1997-98). 심지어 여러 연구들에서 단일 차원의 척도조차도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Boyar(1964)의 Fear of Death Scale이나 Templer(1970)의 Death Anxiety Scale(DDS)는 "죽음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등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Thorson & Perkins, 1977), Dickstein(1972)의 Death Concern Scale은 "부정적 평가", "의식적 걱정" 등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었다(Klug & Boss, 1976). Durlak과 Kass(1981)는 단일차원의 DDS를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죽음에 대한 부적 평가", "죽어 가는 사람과 교류하기를 꺼림", "고통에 대한 부정적 반응", "죽어 가는 생각에 대한 집착",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에 대한 반응" 등 5개의 직교적인 요인을 얻었다.

그러나 다차원적 척도에는 요인의 반복 가능성(replicability)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Livneh(1985)는 Collett와 Rester(1969)의 죽음 불안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원 저자가 주장한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등 4요인과는 다른 5개의 군집을 보고하였다. 요인의 반복 가능성은 특히 문화권이 다를 경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문화나 종교에 따라 죽음 불안의 차원

www.dbpia.co.kr

이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Abdel-Khalek(2002a)은 이슬람교를 숭상하는 단일 종교권인 아랍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통과 처벌의 두려움", "세계에 대한 관여를 상실하는데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에 따른 두려움", "종교적 위반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서구 문화와는 다른 죽음 불안의 이유를 발견하였다. Long(1985-86)은 Hoelter(1979)의 8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죽음 불안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MFODS)를 사우디 아라비아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지만 하위 요인 중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 2개 차원만 부분적으로 유사하였을 뿐 나머지 요인은 발견되지 않거나 혼합되었다.

연령대에 따라 죽음 불안의 요인 구조가 다를 수도 있다. 연령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예컨대 청년층은 지적이며 논리적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이 멀다는 지각은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40대 이상의 중년층은 건강과 생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이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는 죽음과 시간 지각에 대한 두려움이 동반된다(Gessor, Wong, & Reker, 1987-88). 특히 중년층은 시간 지각이 변하여 시간이 이제는 출생 이후의 시간보다는 남은 시간으로 지각되면서(Neugarten, 1968)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고(Levinson, 1977)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죽음불안이 강해진다(Gessor, Wong, & Reker, 1987-88; Katz, 1979). 노년층에는 과거의 삶과 미래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된다(Erickson, 1950). 그래서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거나 죽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중년기나 청년기에 비해 강하지만(Gessor, Wong, & Reker, 1979-88; Keller, Sherry, & Piotowski, 1984; Thorson & Powell, 1988)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염려는 강할 수 있다(Rando, 1984). 따라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청년층과 죽음 불안의 다차원적 개념을 지각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으며, 청년층의 죽음 불안에 대한 요인 구조가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죽음을 다차원적으로 보는 개념에는 Hoelter(1979)의 MFOD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Walker(1982)는 뉴질랜드 대학생과 일반성인에게서 8가지 차원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Long (1986)의 사우디 아라비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요인 구조가 거의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권과 구분되는 한국인의 고유한 죽음 불안을 탐색, 검증하고 새로운 다차원적 죽음 불안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 이전에 먼저 한국에서 MFODS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MFODS의 하위 요인이 우리 문화에서도 도출되는지를 검증하고 척도의 심리측정적 성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Hoelter(1979) 및 Walker(1982)의 연구에서와 같은 연령대의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동일한 요인 구조가 반복되는지 살펴보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인 구조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도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부가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구성된 척도의 심리측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www.dbpia.co.kr

방법

연구대상

1) Hoelter(1979), Neimeyer와 Moore(1994)의 연구에서는 타당화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 바,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MFODS를 실시, 동일한 요인구조가 검증되는지를 알아보았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연령 집단은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원자를 중심으로 표집되었다. 전체 표본수는 312명이었다. 남성은 138명(44.2%), 여성은 174명(55.8%)이었다. 평균 연령은 22.18세(SD=3.14)였으며 연령 분포는 만 18세 이상부터 29세 사이였다. 연구대상에서 대학생은 218명(69.9%)이었으며 대학원생 94명(30.1%)이었다. 296명(94.9%)은 미혼이었고 기혼은 16명(5.1%)이었다. 참여자들의 종교현황은 무교가 171명(54.8%)이었으며 기독교 78명(25.0%), 천주교 29명(9.3%), 불교 30명(9.6%)이었고 기타 종교가 4명(1.3%)이었다.

2)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후에 중장년층에게도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MFODS를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은 181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8.74세(SD=8.56), 연령범위는 만 40세부터 80세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19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1명(22.7%), 60대 이상 21명(11.6%)이었다. 남성은 76명(42%), 여성은 105명(58%)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158명(87.3%)이었고 미혼 10명(5.5%), 이혼 2명(1.1%), 별거 2명(1.1%), 사별 7명(3.9%)이었으며 무응답이 2명(1.1%) 있었다. 종교는 33명(18.2%)이 무교이었고 기독교 45명(24.9%), 천주교 76명(42.0%), 불교 19명(10.5%), 기타 종교 4명(2.2%), 무응답이 4명(2.2%)이었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종교인이 81.8%로 대학생 집단(45.2%)에 비해 종교를 믿는 피험자가 많은 차이를 보였다.

3) 검사-재검사에서는 4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48명의 대학생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13세(SD=1.57), 연령 범위는 만 19세에서 26세였다. 남성은 14명(29.2%), 여성은 34명(70.8%)이었으며 대학생 43명(95.6%), 대학원생 2명(4.4%)이 포함되었다. 결혼 상태는 모두 미혼이었으며 종교 현황을 보면 무교가 30명(62.5%), 기독교 11명(22.9%), 천주교 3명(6.3%), 불교 3명(6.3%)이었다.

도구

다차원적 죽음불안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MFODS)

MFODS(Hoelter, 1979)는 8개의 요인을 포함하는 42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8가지 하위 척도에는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Fear of the Dying Process) 6문항, 시체에 대한 두려움(Fear of the Dead) 6문항,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Being Destroyed) 4문항,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for Significant Others) 6문항,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Fear of the Unknown) 5문항,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Fear of Conscious Death) 5문항,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Fear of the Body after Death) 6문항, 그리고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www.dbpia.co.kr

Premature Death)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Hoelter, 1979). Hoelter(1979)의 연구에서 8가지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65에서 .82였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75였다. 또한 Neimeyer와 Moore(1994)에 의하면 3주 간격을 두고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하위 8가지 척도가 .61에서 .81이었고 전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였다.

Templer 죽음불안척도(Templer Death Anxiety Scale; DAS)

DAS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empler(1970)의 원 척도에서는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었으나 후속 연구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를 포괄하는 5점 척도로 수정되었다. Templer(197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Kuder-Richardson 계수는 .76, 검사-재검사 결과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미령 등(2000)에 의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안미령 등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69였다.

Templer 죽음우울 척도(Templer Death Depression Scale; DDS)

죽음우울 척도는 죽음이란 주제와 연관된 우울을 측정하는 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Templer, Lavoie, Chalgujian, & Thomas-Dobson, 1990). Templer 등(199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Kuder-Richardson 계수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미령 등에 의해 타당화된 DDS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절차

2명의 임상심리학자와 2명의 정신과 의사가 MFODS의 문항을 각자 번역하여 2명 이상이 동의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문항을 영문으로 역번역하여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적 동시에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구사자에게 원 척도와의 안면 타당도를 비교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항이 전달하는 의미와 정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 문항 일부를 재번역하고 역번역하는 과정을 두 차례 반복, 최종 문항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42문항에 대해 20대 대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내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통요인 분석,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 사각회전(oblimin)을 실행하였다. 죽음불안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가정되어 직교회전은 실행되지 않았다.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1) eigenvalue가 1 이상이며 2) 설명변량이 60% 이상 3) 요인 부하량이 .3 이하이거나 두 개 요인 이상에서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 이하인 문항 4) 공통분(communality)이 .3 이하, 문항-총점 상관이 .3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주축분해법을 실행하였다. 또한 MFODS와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결과를 알아보았으며 DAS 및 DDS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통하여 외적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선발된 문항을 가지고 40대 이상의 연령층 181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요인구조가 도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축분해법, 사각회전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Amos 4.0을 이용하여 어떤

www.dbpia.co.kr

요인구조가 보다 적합한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20대 연령층과 4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하여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모수추정 방식은 최대 우도법을 따랐으며 모형의 부합도 평가는 일반 적합지수(GFI), 표준 적합지수(NFI), 비교 적합지수(CFI), 증분 적합지수(IFI), 비표준 적합지수(NNFI), 원소간 근접오차(RMSEA)를 함께 이용하였다. GFI, NFI, NNFI, IFI, CFI 등은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부합도, .08 이하이면 양호, .10 이하이면 보통, .10 이상이면 부합도가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Brown & Cudeck, 1993).

결과

1. MFODS의 타당도와 신뢰도

20대 대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MFODS 42문항을 분석한 결과, Bartlett test of Sphericity는 5065.16(p<.001)으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었고 MSA(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가 .885로 자료의 표본 적합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연구결과, 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11개 도출되었으며 Scree test에서는 5개 요인이 적절함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Scree test에 따라 5개 요인을 선택할 경우 설명 변량이 45.98%(회전 후 33.35%)로 매우 적었다. 통상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60%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보의 손실이 너무 많다. 6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7-8개 요인이 적절하였으며 Hoelter(1979)의 원 연구에서 요인 8개가 지지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8개 요인을 지정하였다.

8개 요인 지정 결과, 원 척도에서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속하는 2문항인 "나는 산 채로 묻힐까봐 두렵다", "죽은 것으로 선고받고 영안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혹시 살아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면 무섭다"는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에 속하였다.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에 속하는 "죽은 후 내 몸이 썩지 않고 미이라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 두렵다. 죽을 때 누가 옆에 있지 않고 한참이 지나 발견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무섭다" 2문항 역시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였으며 다른 요인과의 부하량 차이도 불명확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거나,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과 변별력 있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으로 시사된다. 이에 따라 선택 기준에 따라 요인 부하량이 낮고 다른 요인과의 차이가 .1이하로 명확하지 않은 이들 4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문항의 제거 후에도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는 남은 3문항은 계속 시체에 대한 두려움 요인과 섞이거나 각각 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도출되면서 독립된 요인 구조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의식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한국 대학생들에게 독립된 요인이 아님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되어, 결국 의식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속하는 문항 전체를 제거하였다.

www.dbpia.co.kr

표 1. 20대를 대상으로 한 MFODS의 주축요인분석과 내적 일치도(N=312)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원척도요인
1. 숨이 막혀 질식사하거나 물에 빠져 익사할까봐두렵다.	.765							
2. 죽을 때 심한 고통을 겪을까봐 두렵다.	.762							
3. 폭력을 당해 처참하게 몸이 손상되어 죽을까봐 두렵다.	.732							
4. 암에 걸려 죽을까봐 두렵다.	.687							1
5. 불이 나서 죽을까봐 두렵다.	.624							
6. 죽을 때 굉장히 천천히 죽어갈까봐 두렵다.	.595							
7. 죽은 후에 내 몸이 의대생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867						
8. 죽으면 내 몸을 과학 연구를 위해 기증하고 싶다.(-)		.820						3
9. 죽은 후에 내 눈(안구)을 기증하고 싶지 않다.		.685						
10. 내가 죽으면 친구들이 오랫동안 힘들어 할 것이다.			.664					
11. 나와 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한 참동안 고통스러울 것이다.			.632					
12. 나는 간혹 아는 사람이 죽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608					4
13.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따라서 친구들이 죽어도 그다지 당황하지 않는다.(-)			.566					
14. 가족이 죽을까봐 두렵다.			.541					
15. 내일 혹시 내가 죽는다면 가족이 오랫동안 힘들어할 것이다.			.538					
16. 절대의 존재, 신이 없을까봐 두렵다.				.796				
17. 사후세계가 없을까봐 두렵다.				.716				
18. 죽음이 한 존재의 끝이라는 것이 두렵다.				.493				5
19. 나는 (죽어서) 나의 창조주, 조물주를 만나기가 두렵다.				.473		.415		
20.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기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810			
21. 죽기 전에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660			8
22. 은퇴한 후의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628			
23. 죽은 후 내 육체가 썩는다는 생각을 하면 무섭다.						.780		
24. 죽어서 관에 갇힐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						.697		7
25. 나는 죽어있는 것은 모두 두렵다.						.558		2
26. 화장하던 매장하던 다를 바가 없다.(-)		.305				.399		7
27.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소름끼치는 경험일 것이다.							.716	
28. 한밤중에 혼자 묘지를 걸어가면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							.588	2
29. 죽은 동물을 길에서 치운다면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558	
고유근(eigenvalue)	7.59	2.50	2.31	1.61	1.46	1.06	1.03	
설명변량(%)	26.17	8.63	7.98	5.55	5.03	3.64	3.55	
Cronbach α(전체 척도=.89)	.85	.83	.76	.70	.74	.73	.68	

1=Fear of the Dying Process, 2=Fear of the Dead, 3=Fear of Being Destroyed, 4=Fear for Signifi- ciant Others, 5=Fear of the Unknown, 7=Fear of the Body after Death, 8=Fear of Premature Death.

(-)=역채점 문항.

www.dbpia.co.kr

이러한 7문항의 제거 후 회전 결과, 7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다면 죽어 가는 과정,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시체에 대한 두려움,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Hoelter(1979)의 분석 결과와 요인 구조가 유사하였다. 그러나 요인간의 차이가 불명확한 문항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원 척도에서 "죽은 후 내 몸이 손상되고 볼 상 사나워지는 게 두렵다"(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식이나 손자가 커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는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혼합되었으며 요인간 부하량의 차이가 .1이하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문항들 역시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죽어 가는 과정에 동반되는 두려움으로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체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는 2문항(나는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두렵다, 시신을 만져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은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산재되면서 요인 부하량의 차이도 적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문항들은 장례식장이나 시신이 신체 소멸이나 타인 상실의 연상을 유발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였던 "죽어서 화장되는 상상을 하면 기분 나쁘다" 역시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였고 요인 부하량 차이도 낮았다. 또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는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역시 요인 부하량이 .3 이하로 낮았으며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혼합되거나 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독립 요인으로 도출되었는 바, 이 문항을 포함한 6개 문항을 제거한 후 다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42문항에서 13문항이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29문항이 선택되었다. 29문항을 다시 사각회전 결과, 비교적 안정된 7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7개 요인의 구조는 Hoelter(1979)의 요인구조와 유사하였다. 요인 7개가 전체 설명변량의 60.55%를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숨에 막혀 질식하거나 물에 빠져 익사할까봐 두렵다. 죽을 때 심한 고통을 겪을까봐 두렵다" 등 주로 죽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반영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은 원 척도에서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는 바, 이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요인 2는 "죽은 후에 내 몸이 의대생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죽으면 내 몸을 과학 연구를 위해 기증하고 싶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는 원 척도에서 "죽어서 화장되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를 포함한 4개의 문항으로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1개의 문항은 탈락되었다. 남은 3개 문항의 동질성과 서구 문화와 달리 신체 기증에 거부감이 강한 한국 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인 2는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신체 기증에 대한 거부감"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사된다.

요인 3은 "내가 죽으면 친구들이 오랫동안 힘들어할 것이다. 나와 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www.dbpia.co.kr

죽는다면 한참동안 고통스러울 것이다" 등 나의 죽음으로 인한 친구나 가족의 부적 반응 혹은 친구나 가족의 죽음 예견에 따른 부적 반응을 반영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3은 원 척도에서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요인 4는 "절대의 존재, 신이 없을까봐 두렵다. 사후세계가 없을까봐 두렵다. 죽음이 한 존재의 끝이라는 것이 두렵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4는 죽음으로 인해 존재가 소멸되고 사후의 존재나 세계가 없을 것에 대한 혹은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있을 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 연구에서와 같이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즐기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죽기 전에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등 3개의 문항으로, 원 척도에서는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었다.

요인 6은 "죽은 후 내 육체가 썩는다는 생각을 하면 무섭다. 죽어서 관에 갇힐 생각을 하면 무섭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에서 3개의 문항이 탈락하였고 대신 시체에 대한 두려움에 속하였던 "나는 죽어있는 것은 모두 두렵다"가 요인 6에 계속 포함되었다. 요인 6은 죽음 이후의 신체 소멸이나 죽은 육체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바, 원 척도와 동일하게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2. MFOD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MFODS	FA1	FA2	FA3	FA4	FA5	FA6	FA7
검사-재검사	.63**	.51**	.35**	.26	.65**	.46**	.45**	.60**

FA1=Fear of Dying Process, FA2=Fear for Significant Others, FA3=Negative Attitude to Organ Donation, FA4=Fear of Unknown, FA5=Fear for the Body after Death, FA6=Fear of Premature Death, FA7=Fear of the Dead.

표 3. MFODS와 DAS 및 DDS와의 상관(N=310)

	MFODS	FA1	FA2	FA3	FA4	FA5	FA6	FA7	DAS	DDS
MFODS	1.00									
FA1	.80**	1.00								
FA2	.64**	.36**	1.00							
FA3	.47**	.18**	.21**	1.00						
FA4	.65**	.45**	.24**	.18**	1.00					
FA5	.72**	.49**	.28**	.34**	.52**	1.00				
FA6	.62**	.50**	.37**	.07	.40**	.28**	1.00			
FA7	.64**	.45**	.50**	.23**	.22**	.39**	.26**	1.00		
DAS	.70**	.63**	.39**	.16**	.60**	.54**	.44**	.37**	1.00	
DDS	.66**	.51**	.38**	.22**	.60**	.56**	.40**	.34**	.70**	1.00

DAS=Templer 죽음불안척도, DDS=Templer 죽음우울척도

www.dbpia.co.kr

표 4.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축요인분석, 사각회전 결과(N=181)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원척도 요인
불이 나서 죽을까봐 두렵다.	.742							
폭력을 당해 처참하게 몸이 손상되어 죽을까봐 두렵다.	.679							1
숨이 막혀 질식사하거나 물에 빠져 익사할까봐 두렵다.	.663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소름끼치는 경험일 것이다.	.518		.440				.457	2
죽으면 과학 연구를 위해 내 몸을 기증하고 싶다.		.882						
죽은 후에 내 몸이 의대생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857						3
죽은 후에 내 눈(안구)을 기증하고 싶지 않다.		.727						
나와 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한참동안 고통스러울 것이다.			.685					
나는 간혹 아는 사람이 죽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669					4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따라서 친구들이 죽어도 그다지 당황하지 않는다.			.550					
한밤중에 혼자 묘지를 걸어가면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			.545					2
죽은 동물을 길에서 치운다면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459		.463					
내가 죽으면 친구들이 오랫동안 힘들어 할 것이다.			.441					4
내일 혹시 내가 죽는다면 가족이 오랫동안 힘들어할 것이다.			.423					
죽은 후 내 육체가 썩는다는 생각을 하면 무섭다.				.760				
죽어서 관에 갇힐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				.725				7
나는 죽어있는 것은 모두 두렵다.				.626				
죽음이 한 존재의 끝이라는 것이 두렵다.				.478			.413	5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기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820			
죽기 전에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649			8
은퇴한 후의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594			
절대의 존재, 신이 없을까봐 두렵다.						.667		
사후세계가 없을까봐 두렵다.						.626		5
나는 (죽어서) 나의 창조주, 조물주를 만나기가 두렵다.						.612		
화장하던 매장하던 다를 바가 없다.						.246		7
죽을 때 심한 고통을 겪을까봐 두렵다.							.708	
죽을 때 굉장히 천천히(서서히) 죽어갈까봐 두렵다.							.708	1
암에 걸려 죽을까봐 두렵다.							.568	
가족이 죽을까봐 두렵다.							.545	4
고유근(eigenvalue)	7.84	2.53	2.12	1.83	1.41	1.25	1.11	
설명변량(%)	27.02	8.74	7.30	6.30	4.88	4.31	3.82	

www.dbpia.co.kr

요인 7은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소름끼치는 경험일 것이다. 한밤중에 혼자 묘지를 걸어가면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 죽은 동물을 길에서 치운다면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등 3개의 문항으로 죽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 척도에서와 동일하게 "시체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내적 일치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요인 1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85, 요인 2 .83, 요인 3 .76, 요인 4 .70, 요인 5 .74, 요인 6 .73, 요인 7 .68이었으며 전체 MFODS의 내적 일치도는 .89로 높은 편이었다. 표 2에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다. 4주 간격으로 실시된 재검사 결과 MFOD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하위 요인에서 특히 신체 기증에 대한 거부감은 .26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낮았다.

표 3의 외적 타당도 분석 결과에서도 MFODS는 DAS와 .70, DDS와 .66의 상관을 보여 외적 타당도가 높은 편이었다. 하위 척도에서도 신체 기증에 대한 거부감을 제외하고는 DDS와 .37~.63, DAS와는 .34~.60의 비교적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체 기증에 대한 거부감은 DAS, DDS와 .16, .22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MFODS 전체와도 .47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관이 가장 낮았고 다른 요인들과도 .18~.34의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 연구와 달리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실제로 신체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장기나 신체 기증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시사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원래 척도의 개념적, 경험적 구조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 요인과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한국사회에도 적합한 것으로 시사된다.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신체 기증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되었으며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 문화에 적합하지 않았다.

2.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교검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이렇게 선택된 29문항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실시하여 동일한 요인구조가 도출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유사한 7요인 구조가 도출되었으나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는 5문항에 시체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는 2문항이 묶이면서 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2문항은 "한밤중에 혼자 묘지를 걸어가면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 "죽은 동물을 길에서 치운다면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이었다. 둘째로 시체에 대한 두려움에 속하였던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소름끼치는 경험일 것이다"문항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속하였던 "가족이 죽을까봐 두렵다"문항이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혼합되면서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셋째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였던 "죽음이 한 존재의 끝이라는 것이 두렵

www.dbpia.co.kr

다" 문항이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면서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도 요인 부하량 차이가 .1 이하로 매우 낮았다. 또한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였던 "화장하던 매장하던 다를 바가 없다"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요인과 묶이었으며 요인 부하량이 .3 이하로 낮아졌다.

20대와 40대 이상을 통합하여 실시한 요인분석, 사각회전 결과에서도 요인 1은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되지 않았지만 요인 2에 속하는 3문항과 요인 4의 6문항 모두가 단일한 한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40대 이상의 연구 결과와 연령별 통합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인들에게는, 적어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요인 4와 2를 통합된 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20대와 40대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원 척도의 시체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통합된 6요인 구조와 7요인 구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표 5의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6요인 구조와 7요인 구조 모두 부합도가 높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 NFI, IFI, CFI 등에서는 적합도 지수가 .9 이상으로 모두 양호하였다. 간명성을 함께 고려하는 NNFI, RMSEA 지수를 살펴보면 7요인 구조와 6요인 구조 NNFI가 .986, .983, RMSEA가 .051, .057로 .9 이상. .7 이하의 선택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차이가 미미하지만 7요인 구조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나았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7요인 구조와 6요인 구조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요인 구조를 모두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미미하지만 6요인 구조의 부합도에 비해 7요인 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7요인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시사된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죽음 불안을 다차원적 개념으

표 5. 20대를 대상으로 한 MFODS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x^2	*df*	*NFI*	*RFI*	*IFI*	*CFI*	*PNFI*	*PCFI*	*NNFI*	*RMSEA*
7요인구조	641.36	356	.975	.969	.989	.989	.798	.809	.986	.051
6요인구조	710.63	362	.972	.966	.986	.986	.809	.821	.983	.056

6요인 구조=Fear of the Dead+Fear for Significant Others

표 6. 40대를 대상으로 한 MFODS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x^2	*df*	*NFI*	*RFI*	*IFI*	*CFI*	*PNFI*	*PCFI*	*NNFI*	*RMSEA*
7요인구조	675.31	356	.953	.943	.977	.977	.780	.800	.972	.071
6요인구조	704.95	362	.951	.941	.976	.975	.792	.812	.971	.073

www.dbpia.co.kr

로 보고 Hoelter(1979)의 다차원적 죽음불안척도(MFODS)를 실시, MFODS와 같은 죽음 불안의 다차원적 차원이 우리 문화에서도 도출되는지 검증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령간 요인 구조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척도의 심리측정적 성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확인적 분석 결과 의식이 남아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과 요인 구조가 불분명한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42문항이 29문항으로 축약되었으며,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시체에 대한 두려움,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신체 기증에 대한 부정적 태도),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7개 요인이 추출, 지지되었다. MFODS의 내적 일치도는 .89였으며 7개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 역시 .68~.85로 양호한 편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2이었으며 Templer 죽음불안 및 죽음 우울 척도 점수와는 .70, .66의 상관을 보여 외적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을 제외한 6가지 하위 척도는 현재의 한국 사회 청년층에도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러나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일관성이 낮았고 Templer 죽음 불안이나 죽음 우울과도 낮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MFODS의 다른 차원들과 상관이 낮았고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로 볼 때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단순히 신체 기증에 대한 태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낮은 외적 타당도와 하위 요인과의 낮은 상관으로 볼 때 죽음 불안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 MFODS에서 제외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었다고 하는 상태에서도 살아있으면 어쩌나, 혹시 살아 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정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끝까지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항거하며 삶에 집착하는 태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 Long(1985-86)은 Lipsky(1959)를 인용하여 사우디 아라비안들에게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는 신(모하메드)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표시이며, 그래서 죽음을 신의 의지로 해석하고 죽음에 빠르게 순종한다고 하였다. 죽음을 빠르게 수용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윤회사상과 조상숭배의 윤리가 강하며, 한국인 뿐 아니라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인들도 윤회와 조상숭배를 믿는다(Braun & Nichols; 1997, Klass & Goss, 1999). 윤회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무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남아(영혼불멸 사상)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박종한, 1979). 조상숭배에서는 사람이 죽어 다른 세계에 가더라도 영혼이 조상으로 남아 자손으로부터 숭배를 받고 수호신적 기능을 하면서 현세에서 자손과 맺었던 정신적 유대관계를 지속한다(최길성, 1986). 이렇게 동양인들에게 죽음이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시작되는 단계로,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되어 살아있을 때와는 다

www.dbpia.co.kr

른 가족 내 역할을 수행한다(Klass & Goss, 1999). 이누미야, 최일호 및 한성열(2001)은 한국 대학생의 내세관을 조사하여 소멸형, 현세 지향적 환생형, 내세 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하늘나라형, 천국지옥형, 천당지옥연옥형, 다층이동형, 불분명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서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천국지옥형도 13%로 많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지만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내세 지향적 환생형이 24.8%로 가장 많았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현세 지향적 환생형도 6.6%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누미야(2002)는 한국인의 죽음의 의미를 연구하여 해방, 좌절, 충격, 집대성, 허무 외에 자연 요인을 얻었는데 이 때 죽음은 자연의 순리, 즉 자연의 순환 과정의 일부로 지각된다. 죽음은 생명의 흐름이며 대자연의 일부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가 된다. 이러한 윤회 사상이나 자연 요인이 암묵적으로 작동하는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한 항거나 불인정이 적을 수도 있다. 의식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 문화, 넓게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단일 개념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구 문화에 특유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Long(1985-86)의 죽음 및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을 뿐 나머지 요인은 지지되지 않았던 사우디 아라비아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슬람 단일 문화권으로, 죽음을 신의 의지로 받아들인다(Lipsky, 1959). Abdel-Khalek(2002a, 2002b)은 사우디 아라비안들이 죽음 불안 중 "무덤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종교적 위반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요인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Abdel-Khalek(2002b)은 이슬람 문화에서는 매장 후 무덤에 있을 동안 두 천사가 내려와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 그리고 현세에서의 선행에 따라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를 판단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한국사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이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이다. 한국인의 53.5%가 신앙을 믿으며 전 인구의 21.4%가 기독교, 24.4 %가 불교, 6.7%가 천주교를 믿는다(한국갤럽, 2004). 또한 상당히 산업사회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서구 문화와도 유사한 특징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례는 간소해지고 조상과의 유대는 점점 얇아지고 있다. 노베르트 엘리아스(1998)는 죽음과 노화를 은폐하고 배제하는 현대 문명의 치명적 실패를 지적하였는데 그의 지적처럼 한국에서도 가족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으며 매장보다는 화장이 늘어나고 있다. 죽음은 삶으로부터 격리, 다루어져야 할 관리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유교와 불교의 문화적, 종교적 가치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문화적, 종교적 가치는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대대로 뿌리깊이 전승된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서구사회보다는 고도로 의식화된 장례의식을 치르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그 날은 조상이 돌아온다고 믿으면서), 조상을 숭배한다. 조상이 자손을 지켜주거나 현세의 불행이 조상을 제대로 숭배하지 못한 탓으로 여기기도 한다. 조상이 재탄생하였을 것이라고 믿거나 자신 역시 죽으면 내세에 조상을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요인 구조의 부합도가 보다

www.dbpia.co.kr

우수한 것으로 시사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다른 요인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7가지 차원 중 5개 차원은 20대와 차원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시체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었다. 시체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한 요인으로 묶은 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도 7요인 구조에 비해서는 부합도가 다소 낮지만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하자면 20대 연령층이 대상의 심리적 친밀도에 따라 죽음 불안을 다르게 지각하는 반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대상의 친밀도에 상관없이 죽음에 대하여 단일하고 통합적인,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감정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으로 시사된다. 즉 한국의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죽은 생물(사람, 동물)에 대한 지각과 가족과 친구 등 가깝고 중요한 주변 인물의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반영할 수도 있다. Hoelter(1979), Neiyemer와 Moore(1994), Walker(1982) 등의 연구에서는 중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MFODS의 요인 구조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 불안의 차이가 발달 과정에 따른 연령대의 특징인지, 아니면 서구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의 중년층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8개 차원으로 구성된 MFODS를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 기증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 외의 6가지 차원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 문화에도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시사되었는 바, 이 두 가지 차원을 제외한다면 한국 사회의 청년층에는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죽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한 가지 차원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하위 차원의 문항은 죽음불안의 서로 다른 개념적 측면들을 명료하게 측정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다. 아쉽게도 MFODS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나 요인 분석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연 MFODS가 범연령적으로 죽음 불안의 다차원적 측면을 측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적 연령에 따라 각각의 차원들이 과연 다른 개념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거나 연령에 고유한 죽음 불안의 다른 차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비교 검증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진화 과정에서 출현한 자기의식의 산물로(Dobzhansky, Ayala, Stebbins, & Valentine, 1977; Shumaker, 1990) 범문화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근원적 불안이다. 그러나 문화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죽음 불안을 한국문화에 적용하여 타당화하고, 나아가 다른 문화와 공유하는 한국 사회의 죽음 불안 차원, 그리고 적용이 불가능한 차원을 탐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40대 이상의 연구대상 중 50세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의 표집 인구가 부족하다. 불교 등 일부 종교인의 표집수도 부족하

www.dbpia.co.kr

였다.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이며 특히 불교는 50세 이상 고연령층(35.2%)에서 높은 반면 기독교인은 청년층(23.9%)에서 높다(한국갤럽, 2004).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이상의 81.8%가 종교를 갖고 있어 중장년층의 종교 비율이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 또한 중년층 이상의 천주고 비율이 42%로 가장 높고 불교의 비율이 청년층 9.3%, 중장년층 이상 10.5%로 낮아 중장년층 이상의 종교적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성인들, 특히 종교인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종교비율 및 연령별 종교 비율을 고려하여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층화 표집 및 충분한 사례 수를 표집하여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둘째 중년층 이상과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MFODS의 요인구조의 차이가 발달 연령대의 차이인지, 아니면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차이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서구사회에서 중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MFODS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중년층과 서구사회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죽음 불안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한국인들에게 고유한 죽음불안의 차원을 탐색하고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죽음 불안의 내용이나 차원에 차이와 공통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참고문헌

노베르트 엘리아스. (1998).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박종한. (1979). 한국장례의식의 정신분석적 고찰. 최신의학, 22, 79-86.

안미령, 소예경, 고병수, 최영은, 심재용, 이혜리. (2000). 한국형 Templer 죽음불안 척도, 죽음우울 척도, 상징적 불멸감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가정의학회지, 21, 893-899.

이누미야 요시유끼. (2002). 사생관 척도 개발 및 그 하위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내세관,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생명존중의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누미야 요시유끼, 최일호, 한성열. (2001). 한국인의 내세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77-96.

최길성. (1986). 한국의 조상숭배. 서울: 예전사.

한국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갤럽 출판부.

Abdel-Khalek, A. M. (2002a). Why do we fear death?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reasons for death fear scale. *Death Studies, 26*, 669-680.

Abdel-Khalek, A. M. (2002b). The Kuwait University Anxie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Psychological Reports, 87*, 478-492.

Abdel-Khalek, A. M., & Lester, D. (2004). The factorial structure of the arabic version of the revised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Death Studies, 28*, 787-793.

Beg, M. A., & Zilli, A. S. (198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death anxiety and religious faith to age differentials. *Psychologia, 25*, 121-125.

Boyar, J. I. (1964). The construction and partial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ement of the fear of dea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www.dbpia.co.kr

Rochester, New York.

Braun, K. L., & Nichols, R. (1997). Death and dying in four asian american cultures: A descriptive study, *Death Studies, 21*, 327-359.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Choron, J. (1974). *Death and modern man*. New York: Macmillan.

Cicirelli, V. G. (1999). Personality and demographic factors in older adult's fear of death. *The Gerontologist*, 39, 569-579.

Collett, L,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Depaola, S. J., Griffin, M., Young, J., & Meimeyer, R. A. (2003).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gender and ethnicity. *Death Studies, 27*, 335-354.

Dickstein, L. S. (1972). Death Concern: Measurement and correlates. *Psychological Reports, 30*, 563-571.

Dovzhansky, T., Ayala, F. J., Stebbins, G. L., & Valentine, J. W. (1977). *Evolution*. San Francisco: W. H. Freeman.

Durlak, J. A. (1973).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attitudes toward life and death. *Psychological Reports, 38*, 4363.

Durlak, J. A., & Kass, R. A. (1981). Clarifying the measurement of death attitudes: A factor analytic evaluation of fifteen self-report scales. *Omega, 12*, 129-141.

Eric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Y: W. M. Norton.

Feifel, H. (1990). Psychology and death: Meaningful rediscovery. *American Psychologist, 45*, 537-543.

Fortner, B. V., & Neimeyer, R. A.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 387-407.

Levinson, D. J. (1977). The Mid-life transition: A period of adult psychosocial development. *Psychiatry*, 40, 99-112.

Lipsky. G. (1959). *Saudi Arabia*. Hraf Press, New Haven.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96-999.

Kakz, S. (1979). The relationship of the mid-life transition to death anxiety and self-actualiz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4039.

Karasu, T. B. (1985). Idea of death. *Integrative Psychiatry, 3*, 280-283.

Keller, J. W., Sherry, D., & Piotrowski, C. (1984). Perspectives on death: A developmental study. *The Journal of Psychology, 116*, 37-47.

Klass, D., & Goss, R. (1999). Spiritual bonds to the in cross-cultu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ative religion and modern grief. *Death Studies, 23*, 547-567.

Klug, L., & Boss. (1976). Factorial Structure of the death concer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38*, 107-112.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Simon & Shuster, Inc.

Livneh, H. (1985). Brief note on the structure of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www.dbpia.co.kr

Psychological Report, 56, 136-138.

Long, D. D. (1986).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fears of death among saudiarabians. *Omega, 16*, 43-50.

Neimeyer, R. A. (1997-1998). Death anxiety research: The state of art. *Omega, 36*, 97-120.

Neimeyer, R. A., & Moore, M. K. (199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pp. 103-119).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Neugarten, B. L. (1968). *Middle-Age and Aging*.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ndo, T. A. (1984). *Grief, dying, and death: Clinical intervention for caregivers*. Champaign, IL: Research Press.

Raphael, B. (1984). *The anatomy of bereavement: A handbook for the caring professions*. London: Routledge.

Shumaker, J. F. (1990). *Wings of illusion: The origin, nature, and future of paranormal belief*. Cambridge, UK: Polity Press.

Templer, D. I.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65-177.

Templer, D. I., Lavoli, M, Chalgujian, H., & Thompson-Dobson S. (1990). The Measurement of Death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834-839.

Thorson, J. A., & Perkins, M. (1977). A factor analytic inquiry of a scale designed to measure death anxiety. *Paper presented at the 30th Annual Meeting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San Francisco, CA, November, 18-22.

Thorson, J. A., & Powell, F. C.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691-701.

Thorson, J. A., & Powell, F. C. (1994). A revised death anxiety scale.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pp. 103-119).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Tokunaga, H. (1986). The effect of bereavement upon death-related attitudes and fears. *Omega*, 16, 267-280.

Tomer, A. (1994). Death anxiety in adult life: Theoretical perspectives.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3-2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Walkey, F. H. (1982). The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An independent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466-467.

Yeong, I., Kong, S. H., & Lee, J. (2000). Attitudes towards organ donation in Hong Kong. *Social Science & Medicine, 50*, 1643-1654.

논문접수일: 2005년 6월 22일
수정논문접수일: 2005년 8월 31일
게재결정일: 2005년 10월 12일

www.dbpia.c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4, 395 - 413

The Cross-cultural Examination and Validation Study of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in South Korea

Heung-Pyo Lee
Counselling Center,
Korea Racing Association

Hong-Seok Lee, Hyo-Gin Ko
Department of Psychiatry,
Catholic University

Kyo-H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ath anxiety has been considered as having multidimensional structure but not single dimension.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MFODS) of Hoelter(1979) consists of 8 subscales reflecting multiple death anxiety. This study aims to validate and examine structure of the MFODS in a South Korean sample cross-culturelly. A sample of volunteer 312 over 20 years old and 181 above 40 years of age was analysed. Although 42 items of the Scale have shrunk into 29 items by empirical analysis, the original seven-factor structure of the MFODS was replicated in the Korean sample except Fear of Conscious Death, which seems to be inappropriate in the Korean Culture. The seven-factor structure of this study include Fear of the Dying Process, Fear of the Dead, Fear of Being Destroyed, Fear of Significant Others, Fear of the Unknown, Fear for Body after Death, and Fear of Premature Death. Internal consistency of the MFODS was .89, test-retest reliability was .62. MFODS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empler death anxiety scale(r=.70) and Templer death depression scale(r=.66). But Fear of Being Destroyed could be simply reflection negative attitude about organ donation. Six dimension except fear of conscious death and negative attitude about organ donation seems to be appropriate in the korean culture. The present results also indicated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age effect on the structure of death anxiety.

Keywords: multidimensional, death anxiety, cross-cultural.

www.dbpia.co.kr